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에 대한 연구 - 『京城女子醫學專門學校一覽』을 중심으로 -

¹김 영, ^{2,3}송지청

¹대구한의대학교 기초교양대학, ²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³몽골민족대학 의과대학 전통의학과

A Study on Categorical Structure of Disorders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 Based on 『Gyeongseong Women's Medical College Catalog』 -

¹KIM Young, ^{2,3}SONG Jichung

¹College of General Education, Daegu Haany University

²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³Dept. of Traditio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Mongolian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 : The role of female medical personnel in traditional East Asian societies was limited. It might be said that there are no known female medical practitioners in the history of East Asian medicine. However, in the case of Joseon, there was a system for female medical personnel, Euiyeo(醫女). After the late 19th century, women's social activities in Joseon were expanded by Christian missionaries who entered Joseon in somehow, and efforts to train female medical personnel were also growing. The authors are trying to get the actual operation aspect of Gyeongseong Women's Medical College, established in 1938 after ten years of effort from establishing the Gyeongseong Women's medical school in 1928.

Methods : Through the 『Gyeongseong Women's Medical College Catalog(京城女子醫學專門學校一覽)』 in 1941, owned by the Handok Museum, the authors researched the operation aspects of Gyeongseong Women's Medical College from the application for establishment in 1937 and the opening of the school in 1938 to 1941 when the College Catalog was published.

Results & Conclusion : In the early 20th century, when various medical institutions were appearing in Joseon, it could be said that the role of Gyeongseong Women's Medical College is noteworthy with the fact that a specialized medical college for women has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to train female medical personnel separately.

Key words : Gyeongseong Women's Medical College Catalog, Gyeongseong Women's Medical College, medical college for women, Euiyeo

I. 서론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 여성 의료인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동아시아 의학사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여성 의료인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조선의 경우는 여성 의료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다. 태

종 6년(1406년) 제생원의 건의로 의녀제도를 신설하고, 제생원에서 어린 여성에게 의술을 가르쳤다.¹⁾ 물론 의녀제도가 일반 여성들에게 해당되었던 것은 아니다. 관비를 대상으로 교육이 시행되었으며, 외방에도 계수관의 관비 중에 선발²⁾하여 제생원에서 교육을 한 뒤 배치하였다. 교육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千字文』, 『孝經』 등 서책을 가르쳐 문자를 대강 해독하게 한 뒤에 선발³⁾을 하도록 하였는데, 매월 考講에 『産書』를 포함시키는 등⁴⁾ 의학전문가로서 자질도 갖추게 하였다. 물론 의녀 출신이 관비였다는 점, 그리고 조선

접수 ▶ 2023년 04월 11일 수정 ▶ 2023년 04월 27일 채택 ▶ 2023년 04월 22일
교신저자 ▶ 송지청, 경북 경산시 한의대로 1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 053-819-1826 Fax : 053-819-1850 E-mail : prunedias@gmail.com

- 1) 강연석, 김 훈, 김남일, 김용진, 김종현, 김태우 외. 『의사학』, 교양:대성의학사. 2023:105.
- 2)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2월 4일 신해 3번째 기사
- 3)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2월 27일 갑술 4번째 기사
- 4)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2월 15일 신사 4번째 기사

중기로 오면서 의녀가 의료인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기녀들과 같이 연회에 참가하는 등⁵⁾ 본연의 취지와 달리 변질이 된 점도 있어 한계가 있었지만 전통사회에서 여성 의료인의 역할은 동서양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전통사회에서 의료인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내의원 의관에 관한 연구⁶⁾와 같이 남성 의료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료인의 행적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나, 사료적 한계로 인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선시대에 비록 의녀란 제도적 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인물에 대한 연구는 진행할 수 없어 더욱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다.

개항기 이후 조선에 들어온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여성의 사회활동이 제한적이거나 확대되었다. 이화여자대학교 전신인 여성교육기관 이화학당과 여성병원 보구여관이 19세기 말 설립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의료인 양성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1890년부터 1933년까지 조선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로제타 홀(Rosetta Hall)은 1928년 朝鮮女子醫學講習所를 설립하여 여성 의료인 교육과 양성에 노력을 하였다. 연장선상에서 여성 의료 교육을 단순히 강습소가 아닌 정식 학교 설립을 통해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도 뒤따랐다.

20세기 초의 한국 여성들의 의료활동과 여성대상 의학교육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있었다. 최은경의 일본 도쿄에서 수학한 여성의료인들에 대한 연구⁷⁾, 이방원의 보구여관에 대한 연구⁸⁾ 등은 여성의 의료활동에 관한 것이었다. 여성대상 의학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기관 설립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었다. 김성은의 로제타 홀의 행적에 대한 연구⁹⁾와 김상덕의 여자의학강습소에 관한 연구¹⁰⁾는 정식 여성 의학교육기관 설립 이전의 노력에 대한 것이었고, 기창덕의 사립여자의학교육에 대한 연구¹¹⁾는 20세기 초부터 해방때까지 사립여자의학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였다. 위 연구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20세기 초 여성 의료인의 역할이 중시되었으며, 당시 사회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노력과 과정들은 결국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이하 경성의의전)의 설립으로 귀결되었다. 경성여의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백운기는 경성여의전 설립과정에 대한 연구¹²⁾를 진행하였으며, 기창덕은 경성여의전의 교수진을 소개¹³⁾하여 경성여의전에 대한 대략적인 모습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기창덕의 연구는 경성여의전 설립과정에 대해 자세히 논하였다. 여성을 위한 의학전문학교의 설립은 로제타 홀 선교사의 여성의료인 양성을 위한 노력으로 1928년 여의학교 설립을 위한 기성회가 만들어지고, 곧바로 경성여자의학강습소가 만들어진 사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로제타 홀이 본국으로 돌아간 후 경성여자의학강습소 운영을 받았던 吉貞姬와 金鐸遠 부부가 1934년 여자의학전문학교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습소를 여의학교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펼치던 중, 金鐸遠이 보성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던 金性洙의 소개로 만난 金鍾翊이 임종 전 남긴 유지와 기금 65만원으로 여자의학전문학교 설립을 위한 기반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1930년대 조선총독부는 한국 여성의 의학교육에 관심을 보이지 않자 金鍾翊의 부인 朴春子가 여자의학전문학교 설립에 참여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장이었던 佐藤剛藏을 찾아가 학교설립 권한을 일임하게 되고 당시 명륜동에 건설 중이던 경성고등상업학교를 매입하기로 하고 1938년 인가를 얻어 경성여의전을 설립하게 되었다.¹⁴⁾ 이후 경성여의전은 서울여자의과대학과 수도의과대학으로 개칭되었다가 종합대학인 우석대학이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우석대학교 의과대학이 되었으며, 1971년 학교법인 우석학원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병합되면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되었다.¹⁵⁾

이렇게 1928년 여의학교 설립을 위한 기성회의 설립으로부터 10여 년의 노력으로 1938년 설립된 경성여의전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설립과정과 교육과정 일부가 소개된 바 있으나 더 자세한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 최근 한독 의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京城女子醫學專門學校一覽』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이 서적은 1941년에 출간된 것으로

5) 강연석, 김 훈, 김남일, 김용진, 김종현, 김태우 외. 『의사학』. 고양:대성의학사. 2023:107.

6) 박훈평. 「조선후기 내의원 의관의 직임과 인사」. 한국역사학회. 2022:35(1):45-58.

7) 최은경. 「일제강점기 조선 여자 의사들의 활동」. 코기토. 2016:80:287-316.

8) 이방원. 「보구여관(普救女館)의 설립과 활동」. 의사학. 2008:17(1):37-55.

9) 김성은. 「로제타 홀의 조선여의사 양성」. 한국기독교와 역사. 2007:27:5-43.

10) 김상덕. 「여자의학강습소」. 의사학. 1993:2(1):80-84.

11) 기창덕. 「사립여자의학교육」. 의사학. 1993:2(1):85-98.

12) 백운기, 김상덕. 「김중의의 유언과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설립과정」. 연세의사학. 2011:14(1):7-17.

13) 기창덕. 「의학교육의 현대화 과정」. 의사학. 1994:3(1):138-141.

14) 기창덕. 「사립여자의학교육」. 의사학. 1993:2(1):85-98.

15) 고려대학교병원 70년사 편찬위원회. 『고려대학교병원 70년사』. 서울:고려대학교병원. 2011:14-19.

당시 학교 전경 사진과 전체 부지에 대한 지도 등이 실려 있으며 학교 연학과 함께 재단법인 및 학교의 직원, 교원, 재학생 명단뿐만 아니라 교과목과 시수 등 학교 전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II. 본론

『京城女子醫學專門學校一覽』을 바탕으로 경성여의전의 규모와 운영상황을 살펴보았다.

1. 연혁

『京城女子醫學專門學校一覽』 「第一」은沿革을 소개하고 있다.

1941년에 발간된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일람』의 연혁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37년(昭和12年)

09월01일 財團法人 友石學院 및 경성여의전 創立事務所 설립(서울 동승동 落山莊)

12월09일 財團法人 友石學院 및 경성여의전 設立 인가 신청서 제출

1938년

04월08일 財團法人 友石學院 및 경성여의전 設立 인가 財團法人友石學院 理事長 金杜洙의 친권자 朴春子,

理事 佐藤剛藏과 芮宗錫,
監査 朴鳳根

04월30일 學校長 醫學博士 佐藤剛藏 취임 인가

05월01일 제1회 입학시험 시행(3일간)

05월16일 입학식 및 수업개시

12월01일 京城高等商業學校 교지내 校舍 일부 竣功

1939년

03월22일 제2회 입학시험(2일간)

04월11일 입학식

12월11일 京城高等商業學校 교지 및 교사 무상양도 신청서 세무감독국에 제출

1940년

02월20일 부속의원 설립허가원 경기도¹⁶⁾에 제출

03월08일 제2 강의실 준공

03월19일 제3회 입학시험(2일간)

04월11일 입학식

07월02일 부속의원 설립 허가

10월23일 교가제정식

10월25일 제3, 제4, 제5 강의실 및 부속건물 준공

1941년

03월18일 제4회 입학시험(2일간)

04월11일 입학식

08월27일 부속의원병동신축공사 및 부속건물 준공

09월01일 의학박사 高楠榮 취임 및 부속의원 진료개시

위 내용을 살펴보면 1937년부터 경성여의전 설립을 위한 사무소를 설립하고 38년 인가를 취득한 후 바로 입학시험을 통해 신입생을 모집하였으며, 41년까지 매년 총 4회에 걸쳐 입학시험을 실시하였고, 41년에서야 대부분의 건물들을 완성하는 동시에 부속의원에서 진료를 시작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 법령

『京城女子醫學專門學校一覽』 「第二」는 法令에 대한 내용이다. 경성여의전 설립과 관계된 법령을 나열하고 있는데, (1) 朝鮮教育令, (2) 專門學校令, (3) 公立私立專門學校規程, (4) 私立學校規程, (5) 私立醫學專門學校指定規則을 전문 또는 일부를 기재하였다. 또한 醫師法 일부를 기재하였다.

3. 재단법인 우석학원

『京城女子醫學專門學校一覽』 「第三」과 「第四」는 ‘기부행위’와 ‘기부행위시행세칙’에 관한 내용이다. 일본에서 기부행위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 아니라, 20세기 초 일본은 민법총칙의 규정에 근거해 설립되었던 공익법인 제도 개혁 이전의 재단법인과 개혁 후에 경과 조치로 존속하고 있던 특례 재단 법인에 대해 ‘기부행위’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¹⁷⁾ 따라서 「第三」과 「第四」의 내용은 (1) 財團法人 友石學院의 설립 목적과 사업, (2) 명

16) 당시 서울은 행정구역상 京畿道 京城府였다.

청과 사무소, (3) 자산과 회계, (4), 임원 등의 내용과 그 시행세칙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증서」 서식을 제시하였다. 이 중 교과과정 등 몇 가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경성여의전 학교규칙

『京城女子醫學專門學校一覽』「第五」는 경성여의전 학칙에 관한 내용이다. (1) 총칙, (2) 교과과정, (3) 입학, (4) 재학, (5) 휴학 및 퇴학, (6) 상벌, (7) 학비, (8) 시험, (9) 연구생, (10) 외국인학생, (11) 복장규정, (12) 기숙사 등에 내용과 함께 「입학원서」, 「이력서」, 「서약서」, 「졸업증서」,

1) 교과과정

경성여의전은 1년의 예과과정과 4년의 학과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일본인이 다니는 여자고등학교는 5년제이고 한국 여성들의 고등학교는 4년제였는데, 4년제 고등학교 출신을 위하여 예과제도를 도입¹⁸⁾하였다. 전체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경성여의전 과목 및 주당 시수

교과목		주당 시수				
명칭	내용	예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修身 ¹⁹⁾		1	1	1	1	1
일본학		1	1	1	1	
국어 ²⁰⁾		4	2	2		
외국어	독일어	4	2			
	라틴어	0.5				
	중국어	2	1	1	1	1
가정학		1				
수학	대수기하 및 고등수학 대강	4				
물리학	강의 및 실험	4				
화학	무기화학·유기화학·물리화학 강의 및 실험	6				
	실습	1				
생물학	동물학 강의 및 실험	2				
	식물학 강의 및 실험	2				
해부학	계통해부학 강의		8			
	해부실습		2			
	조직학 강의		1			
	조직학 실습		1.5			
	발생학 강의			1		
생리학	국소해부학 강의			1		
	강의 및 실험		6			
의화학	실습		1			
	강의 및 실험		5			
병리학	실습		1			
	총론 및 병리해부학 강의		2	4		
	병리조직학 실습			2		
약리학	부검 표본 설명				0.5	
	강의 및 실험			3		
	실습			0.5		
	처방학			0.5		

17) 위키피디아: <https://ja.wikipedia.org/wiki/%E5%AF%84%E9%99%84%E8%A1%8C%E7%82%BA> (2023년 4월 4일 갈무리)

18) 기창덕. 「사립여자의학교육」. 의사학. 1993;2(1):92.

19) 2차 세계대전 중 설정했던 교과목 중의 하나로 '도덕'에 해당된다.

20) 여기서는 日本語를 의미한다.

명칭	교과목 내용	주당 시수				
		예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미생물학 및 기생충학	강의 및 실험 실습			4 1.5		
위생학 및 방의학	강의 및 실험			2		
내과학	진단학 강의 및 실습			3		
	각론 강의			1.5	3	1.5
	임상 강의				3	3
	외래환자 임상 강의				不定時	不定時
외과학	총론 강의			3		
	각론 강의			1.5	3	1.5
	임상 강의				3	3
	외래환자 임상강의				不定時	不定時
산부인과학	산과 강의				2.5	
	부인과 강의				2.5	
	임상 강의					2
	산과 모형 연습 외래환자 임상 강의					不定時 不定時
소아과학	강의 및 임상 강의 외래환자 임상 강의				3	1 不定時
안과학	강의, 임상 강의 및 검안경 사용법 외래환자 임상 강의				3	1 不定時
이비인후과학	강의 및 임상 강의 외래환자 임상 강의				2	1 不定時
피부과비뇨기과학	강의 및 임상 강의 외래환자 임상 강의				3	1 不定時
정신과학	강의 및 임상 강의			또한		2
치과학	강의 및 임상 강의 외래환자 임상 강의				1	不定時
렌트겐학	강의 외래환자 임상 강의					1 不定時
의사법제						不定時
체조		2	2	2	1	1
계		34.5	36.5	35.5	34	20

위 표를 살펴보면 현재 의학교육과정과 큰 틀에서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이나 예과로 입학한 조선여성에게 대해 일본어 교육과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었다. 한편 의학과 관련하여 외국어 중 라틴어 교육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과에서 독일어나 중국어에 비해 시수가 적은 것도 특이한 사항이다. 또한 기초교육과 내·외과 이론 강의는 2학년까지 다루고 있고, 임상강의는 모두 3, 4학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기초교육과 임상교육을 분리한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치과학을 두고 있다는 점인데, 치과대학이 따로 없으므로 의사교육 치과학을 포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부과와 비뇨기과를 한 과목으로 묶은 것인데, 그 자세한 이유는 알기 어렵다.

2) 입학

경성여의전은 입학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우선 학년개시 30일 내에 등록을 해야 했다. 예과 입학자격은 고등여학교졸업자, 전문학교입학자검정규정에 의한 시험검정합격자, 4년제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로 하였고, 본과 입학은 예과수료자와 본과 결원인원에 한정하여 예과입학자격을 얻고 예과과정을 수료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학교장이 인정한 자로 하였다. 또한 본과 2년 이상에 결원이 생겼을 시 공립·사립 전문학교규정에 의거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타학교에서 전학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모든 입학지원자는 신체검사와 구두시험을 봐야 했다.

3) 학비

『京城女子醫學專門學校一覽』에 소개된 1년 학비는 예과가 100원, 본과가 150원이었다. 또한 1년 실습비로 예과는 20원을 본과는 50원을 내야 했으며, 졸업시험을 보기 위해 추가로 20십원을 내야 했다. 추가시험이 필요한 학생들은 또다시 1개 과목당 5원과 1개 과목 추가 시 매 과목당 3원을 내되 최대 20원 한정이었다. 그리고 수업료는 3기로 분납이 가능하였다. 1930년대 말 서울의 물가 추이를 살펴보면 당시 쌀(1두) 5.09원, 쇠고기(1근) 3.52원, 밀가루(22 kg) 10.78원 등²¹⁾이었고, 1910년 1원이 순금 2푼(750 mg)과 등가²²⁾였으므로 기본교육비 예과 120원과 본과 200원은 저렴한 금액은 아니었을 것이다.

4) 시험

시험은 학기시험, 학년시험 그리고 졸업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학기시험은 해당 학기 중에 이수한 교과목에서 시행되었고, 학년시험은 각 학기시험의 성적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졸업시험은 4학년을 마치고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안과학, 이비인후과학, 피부과비뇨기과학, 정신과학만 보았다. 시험성적은 각 교과목마다 100점 만점으로 하였고 교과목마다 40점 이상을 그리고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하였다. 그 중에서도 해부학, 생리학, 의화학, 병리학, 약리학, 미생물학 6개 과목은 각각 5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을 하는 등 별도의 규정을 두어 다른 과목보다 중요한 과목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험 성적 중 60점 미만 교과목이 50% 이상인 경우와 진급이나 졸업을 할 수 없었고, 학년시험과 졸업시험에서 합격을 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 불합격 교과목 대상 재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졸업자는 경성여의전 醫學士를 취득하였다.

5) 연구생

졸업 후 연구생 과정에 대한 규정도 있었다. 의사자격을 갖추고 특별히 허가를 받아 연구생이 될 수 있었다. 연구생

의 지도교수는 학교장이 지정하도록 하였다.

6)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의 경우 입학규정에 따라 입학할 수 있었으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에 정원 외로 입학이 가능하였다. 외국인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별도의 시험을 합격해야 했다.

7) 기타

기타 사항으로 학교에서 정한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복장규정이 있었으며, 건설예정이라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숙사 규정도 만들어 미래를 대비하였다.

5. 재단법인 우석학원 및 경성여의전 학교규정

『京城女子醫學專門學校一覽』「第六」은 (1) 직제, (2) 복무, (3) 사무분장, (4) 문서관리, (5) 숙직, (6) 급여, (7) 교수회에 관한 내용이다.

재단과 학교의 직제로는 학교장, 교수, 조교수, 강사, 주사, 학생주임, 서기가 있었고, 부속위원의 직제로 의원장, 과장, 의사, 약국장, 약제사, 간호부장을 두었으며 해당 직제의 업무와 직원들의 복무사항에 대해 기재하였다. 그리고 각 부서의 사무분장도 정하였는데 재단과 학교의 부서는 서무과(그 아래 서무팀, 회계팀), 교무과, 학생과가 있었고 각 부서의 업무를 상세히 기재하였다.

6. 직원

『京城女子醫學專門學校一覽』「第七」은 ‘경성여의전 학생의 마음가짐’이란 항목으로 학생규칙을 자세히 열거하였으며, 「第八」은 ‘국민총력 경성여의전 연맹’에 대한 규약을 기재하였다.

한편 「第九」는 재단 이사장과 학교 직원에 대한 내용이다. 앞서 언급한 학원 이사장은 金杜洙와 친권자 朴春子와 2명의 理事, 1명의 顧問이 한국인이었고, 1명의 理事와 1명의 주사는 일본인²³⁾이었다. 학교장은 의학박사 高楠榮이였

21)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m/view.do?levelId=km_008_0060_0040 (2023년 4월 4일 갈무리)

2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0570> (2023년 4월 4일 갈무리)

23) 한국인과 일본인의 구별은 이름을 통해 결정하였다. 다만 일본 氏로 표기된 인물의 경우 원래 일본인인지 아니면 창씨개명을 해서 그러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일본인으로 간주하였다.

다. 교수 총 15인 중 한국인은 4명이었고, 조교수 총 9인 중 한국인은 2명이었으며, 강사 17명은 모두 일본인이었다. 이밖에 각 교실이나 과에 배치된 조수들 총 12명 중 한국인은 4명이었다. 부속의원 관련해서 의사 총 11명 중 한국인은 3명이었고, 약국원 4명 중 2명이 한국인이었다. 마지막으로 「第十」에 예전 직원 명단을 기재하였다.

7. 학생

『京城女子醫學專門學校一覽』「第十一」은 학생명단을 기재하였다. 학생들의 학년별 한국출신인·일본인 수²⁴⁾와 출신 지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예과 1학년 한국인·일본인 학생 수 및 출생지역

합계	황해	경북	경남	전남	경기	충남	평남	강원	함북	함남	평북		
한국인	51	3	2	5	2	19	4	4	2	4	1	5	
	오사카	후쿠오카	홋카이도	이시카와	가고시마	아마구치	나라현	나가사키	아마가타	사이타마	시마네	와카야마	오카야마
일본인	18	2	4	1	1	1	1	2	1	1	1	1	1

표 3. 본과 1학년 한국인·일본인 학생 수 및 출생지역

합계	황해	경북	경남	전남	경기	평남	강원	함북	함남	평북	전북
조선인	51	6	5	3	2	20	2	1	4	2	5
	후쿠오카	와카야마	오이타	아오모리	구마모토	고치현	도야마				
일본인	11	2	1	2	1	3	1	1			

표 4. 본과 2학년 한국인·일본인 학생 수 및 출생지역

합계	황해	경북	경남	전남	경기	충남	평남	함북	함남	평북	충북
한국인	41	1	1	3	2	17	2	2	5	3	3
	효고	후쿠오카	도쿠시마	가고시마	아마구치	시마네	아오모리	구마모토	히로시마		
일본인	10	1	2	1	1	1	1	1	1		

표 5. 본과 3학년 한국인·일본인 학생 수 및 출생지역

합계	황해	경북	경남	전남	경기	충남	평남	강원	함남	전북	충북
한국인	50	2	2	1	4	26	3	1	1	4	5
	도지키	고치	히로시마								
일본인	4	1	2	1							

『京城女子醫學專門學校一覽』「第十一」에는 본과 4학년 명단이 없는데, 이는 1938년 1회 입학시험을 시행하였으며, 일람이 만들어진 1941년에 4회 입학시험을 시행하였으므로 모두 4개 학년만 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과 3학년에 일본인 학생이 4명인데, 39년 1회 시험은 대부분 한국인이 입학하여 예과 1학년을 구성하였을 것이고, 일본인은 39년 입학생이 본과 1학년이 된 40년에 입학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 표를 살펴보면 한국인 학생이 일본인 학생 수와 비교

하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비록 학장을 비롯하여 교수, 조교수, 강사, 조수 등 대부분의 의학교육 관련인들이 일본인수가 다수였지만 학생들은 한국인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다만 해가 갈수록 일본인의 수가 4명에서 1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한국인 학생들 출신 지역은 경기도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학년 당 6명 이하의 소수였다. 일본인 학생들은 일본 각지에서 들어왔으며 지역별 분포의 특징은 찾을 수 없었다.

24) 여기에서는 이름을 기반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을 구별하지 않고 출신 지역으로 구별하였다. 출신 지역이 한국이지만 일본 氏를 가지고 있어 창씨 개명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모두 子로 끝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한국인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京城女子醫學專門學校一覽』「第十一」 마지막에 朝鮮人 수와 内地人 수를 정리해놓았는데, 표의 수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III.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경성여의전의 실제 운영 모습을 비교적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연혁을 통해서 경성여의전 설립 이후 입학시험과 새로운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부속병원설립의 과정이 잘 기록되었다.

재단법인과 학교와 관련된 법령을 소개하여 재단운영과 학교운영에 법적 근거를 준수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재단운영 관련 설립 적과 고유 사업 그리고 규모와 운영진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학교규칙을 만들어 경성여의전의 교과과정과 시수를 제시하였으며, 입학, 학비, 시험에 관한 규정과 연구생, 유학생 규정도 제시하여 경성여의전의 운영이 현재 의과대학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재단과 학교의 교직원 및 부속의원의 의료인들에 대한 직무와 분장업무를 기재하였으며, 각 부서에 배치된 인원도 자세히 밝히고 있었다.

한국의 여성 의료인 양성 교육기관 설립 운동 결과로 만들어진 경성여의전은 그 목적에 맞게 한국 출신 학생들 중심으로 교육되고 있다는 사실도 학년별 학생들의 출신 지역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다만 학교장이 일본인이었다는 점, 교육자들의 대다수가 일본인이었다는 점, 그리고 학교 운영이 계속될수록 일본인 학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은 경성여의전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나, 조선의 의녀제도처럼 여성의료인 양성이라는 취지, 그리고 20세기 초 다양한 의학교육기관이 등장하고 있던 시기에, 별도로 여성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 의학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경성여의전의 역할은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조선의 의녀제도가 있었음에도 근대화 이후 한의학 분야에서는 여성 의료인에 대한 교육은 사라지고, 서양의학에 대해서만 여성 의료인 전문 교육의 장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안타까움이 있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2021S1A6A6082021)의 학술연

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연구를 위해 『京城女子醫學專門學校一覽』자료를 제공해 준 한독한의약박물관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강연석, 김 훈, 김남일, 김용진, 김종현, 김태우 외. 『의사학』. 고양:대성의학사. 2023:105.
2. 최은경. 「일제강점기 조선 여자 의사들의 활동」. *코기토*. 2016;80:287-316.
3. 이방원. 「보구여관(普救女館)의 설립과 활동」. *의사학*. 2008; 17(1):37-56.
4. 김성은. 「로제타 홀의 조선여의사 양성」. *한국기독교와 역사*. 2007;27:5-43.
5. 김상덕. 「여자의학강습소」. *의사학*. 1993;2(1):80-84.
6. 기창덕. 「사립여자의학교육」. *의사학*. 1993;2(1):85-98.
7. 백운기, 김상덕. 「김종익의 유언과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설립과정」. *연세의사학*. 2011;14(1):7-17.
8. 기창덕. 「의학교육의 현대화 과정」. *의사학*. 1994;3(1):73-142.
9. 박훈평. 「조선후기 내의원 의관의 직임과 인사」. *한국의사학회*. 2022;35(1):45-58.
10. 고려대학교병원 70년사 편찬위원회. 『고려대학교병원 70년사』. 서울:고려대학교병원. 2011.
11. 경성여자의학전문교.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일람』. 서울:靑山印刷所. 1941.
12.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13. 위키피디아: <https://ja.wikipedia.org/wiki/%E5%AF%84%E9%99%84%E8%A1%8C%E7%82%BA> (2023년 4월 4일 갈무리)
14.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m/view.do?levelId=km_008_0060_0040 (2023년 4월 4일 갈무리)
1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0570> (2023년 4월 4일 갈무리)